

오늘 이렇게 훌륭한 컨퍼런스에 참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NPO 휘파람새 리본의 이사를 맡고 있는 오기노 고타로입니다. 일본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9년에 아동 포르노 금지법이 성립했습니다. 올해로 정확히 20년이 되는데, 오늘의 주제인 실재하지 아니하는 가공의 아동인 만화 캐릭터나 인형 등을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20년 이상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아동 포르노 금지법은 그 성립 경위, 그리고 또 그 후의 개정을 둘러싼 논의에서 항상 국제법의 동향이라는 것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나 아동 포르노 특별 보고관으로부터 일본 정부는 가상 아동 포르노 규제에 대한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저희 휘파람새 리본은 허구의 표현과 실제 성 폭력은 다르다는 입장에 서서 실재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에 대한 성 표현을, 아동 포르노 금지법제의 금지 대상으로 삼는데 반대해 왔습니다. 일본법에서도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고조되는 사태도 몇 번인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법개정을 막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한 국제법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늘 저희를 도와 주셨던 것이 바로 오늘 회의의 주최자인 오픈넷입니다. 언제나 적절한 조언을 해주시고, 또 저희를 돕기 위해 유엔에 편지까지 써 주셨습니다. 한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형사법 · 형사 정책에 관한 이야기는 다카야마 선생님께서, 그리고 정보기술·정보법에 관한 이야기는 하타 선생님께서, 잠시 후 일본의 현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 저는 지금 활동 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 2가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상황 중 제가 무척 걱정하는 것이 바로 가상 아동 포르노와 관련해 터부로 간주되는 표현의 범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성 표현 그 자체가 아닌 그러한 성 표현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고 배제되는 기회가 늘어난 듯합니다.

일본의 잡지 ‘망가 논쟁(즉 만화 논쟁)’은 신용카드 결제 회사의 규약을 이유로, e-book 스토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 만화 논쟁은 만화 규제 문제 등에 대하여 소개하는 전문 잡지로, 저희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대해 늘 리포트 기사 등을 게재해 주기도 하는 잡지입니다. 저희가 항의를 해서 계속 판매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비단 일본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지요.

저기 앉아 계시는 말씀 씨가 소속된 프로스타시아 재단도페이팔로부터 기부 결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리얼들의 규제에 관한 이선옥 작가님의 동영상도 Youtube가 부분적으로 광고를 제한했다고 들었습니다.

법익이 명확하지 아니한 허구 표현의 금지가, 표현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배제해버리는 사태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이러한 허구의 표현과 실제 성 폭력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관련해서입니다.

이시하라 신타로 씨가 도쿄지사로 있을 때, 일본 경시청은 2000년대부터 2010년대에 걸쳐 “오타쿠 즉 덕후의 거리”로 널리 알려진 아키하바라에서 불법 신체검사를 반복해서 실시했습니다. 이는 “덕후(오타쿠)”로 생각되는 사람만 자의적으로 선택해 이루어진 검사였습니다.

커티칼 등 일반적인 학용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아키하바라 거리에서 불법적으로 구속되고 경찰 시설로 연행되었습니다.

정부의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이나 도쿄도의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그들은 그 근거로 삼을 수 있을 만한 통계 데이터를 필요로 했습니다.

아키하바라에서 덕후들을 대량으로 구속하고, 위협적으로 이루어진 소지품 검사나 불시 검문은, 만약 만화나 피규어의 성 표현과 실제 성범죄 간에 정말로 상당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데이터의 보물섬 같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대적으로 강제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시청은 입법에 유리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었던 듯합니다.

일반론적으로 “연관성이 없음”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의 종교단체나 경찰이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근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절대 안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바는 좀처럼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니, 결국 규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무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역지로 통계를 해석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만, 그 이상으로 걱정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만화 독자나, 리얼돌 유저들을, 애당초 성범죄자인 것 마냥 치부해 버리고, 그들의 인권이나 존엄상을 훼손하는 형태로 또다시 조사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유엔은 일본 정부에 규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하라 지사의 시절처럼 도쿄도나 경시청이 했던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로스타시아와 같은 단체가, 적절한 방법의 과학 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시도에 저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